

하루를 시작하며



좌 정 목
시인·문학평론가

길의 한자어 '도(道)'는 '다니는 길'의 뜻 외에 '이치, 도리', '근본, 근원, 우주의 본체', '작용, 기능, 묘용' 그리고 '방법' 등의 많은 뜻으로 사용된다. 우리말의 '길'도 한자어 '도(道)'의 뜻을 대부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의미들을 표현해 일상에서 널리 소통이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양한 의미들이 중심 의미인 '다니는 길'에서부터 연상된다는 사실이다.

'길'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비단길'은 기원전 한무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랜 시간에 걸

길(道) 위에서 가끔 망상이 아른거린다

쳐 당나라 시대에 이르러 동서 교역로로 자리를 잡았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종교와 정치가 배경이 되어 형성된 독특한 길이지만 지금도 세계인들이 찾고 있다. '비단길'보다 먼저 왕래했다고 할 수 있는 중국과 인도를 잇는 '차마고도'가 있다.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 길게 연결된 7번 국도를 기억하는 이들도 많다. 모두 '다니는 길'의 의미다.

인류사에서 전쟁이 종교와 닿아 있거나 이념과 관련이 된다면 길은 또 대부분 이 전쟁으로 해서 형성됐다. 길은 문명과 문화 접촉의 촉매가 되기도 하지만 실상은 군사의 이동과 이에 따른 보급로의 역할을 담당했다. 아프리카의 경우 2차대전 후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이룰 수 있었지만 부적절한 국경 문제로 크고 작은 충돌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유럽 여러 나라들이 전쟁 수단으로 사용한 길에 의해 왜곡된 분할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다니는 길은 육로만이 아니다. 바다는 물론이고 하늘까지 촘촘한 그물로 연결이 돼있다. 제주 강정항도 바다를 통한 길의 확장인 셈이고 지금 제주도민들에게 갈등인 제주 제2공항도 하늘길을 연결해나가는 것에 대한 문제다. 길이 '작용, 기능, 묘용'의 성격을 지닌다고 한다면야 마다할 까닭이 없다. 그러나 '이치, 도리', '근본, 근원, 우주의 본체'와 닿아있다면 가치의 문제가 아닌가. 이 문제가 어디 쉬운가.

서울 개포동과 구룡마을은 양재대로에 의해 북과 남으로 나뉘어 있는데 길에 의해 두 마을은 전혀 다른 모습이기도 하고 삶의 양상도 몹시 이질적이다. 서로를 바

라보며 남쪽은 두려움을 느끼며 증오를 키울 수도 있고 북쪽은 무시와 멸시로 단절을 피할 수도 있다. 며칠 전 두조로(두모와 조수를 잇는) 수장동 근처에서 노루 한 마리가 찾길로 뛰어 들어서 사고를 당했다. 제주의 길은 이미 자연과 인간이 공존한다는 말이 무색해졌다.

삶의 길은 가치 추구의 과정이므로 방향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다함없이 사라진다. 그럼에도 가치의 고저와 장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날마다의 판단에 의해 낮고 짧은 것들은 쉽게 잊혀거나 소외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선택과 판단이다. 방향성을 위해 단절을 감수한다면 결핍은 피할 수 없다. 다만 가치의 역사성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주의 '올레길'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사설

JDC 진행 지역사회 공헌사업 반응 좋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지역사회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신문활용교육인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Newspaper In Education)'와 올해 첫선을 보인 '미디어 체험데이' 사업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스타강사와 함께하는 JDC 특 특취는 교육 특강'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지난달 26일 열린 '2022 JDC와 함께하는 미디어 체험데이' 방문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 NIE 사업과 미디어 체험데이 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9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NIE가 학교 현장에 활용된다면 학생들의 학습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률도 96%('매우 그렇다' 68%, '그렇다' 28%)였다. 올해 하반기 두 차례 진행된 '스타강사

와 함께하는 JDC 특 특취는 교육 특강'도 학생들의 호응도가 꽤 높게 나왔다. 특강 당일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사 지도 방법과 내용에 만족하는가'에 대해 72%가 '매우 그렇다', 22%가 '그렇다' 등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JDC가 지역사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NIE사업의 경우 교육적 효과는 물론 미래 인재 양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호응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도내 청소년들의 인생 나침반이 될 멘토와의 만남인 JDC 교육 특강도 마찬가지다. 설문조사에서 '추후 참석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86%가 긍정적이었다. 따라서 JDC가 앞으로 인재 양성은 물론 지역사회를 위해 이같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열린마당

생명 지키는 작은 실천, 119안심콜 서비스



강 혁 철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119안심콜, 대다수의 사람들이 처음 접해보는 서비스일 것이다. 119안심콜 서비스란 응급환자의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자주 가는 병원 등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119신고 시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정보가 전송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맞춤형 구급서비스이다.

또한, 119신고 사실을 보호자에게 문자로 전송해 보호자도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응급상황 초기 단계에 맞춰 적절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소방 서비스이다. 특히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질환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있는 환자에게 매우 필요한 서비스이다. 환자가 의식이 혼미하거나 말을 못하는 경우, 보호자가 없어 환자의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 119안심콜 서비스 내 환자 정보가 등록돼 있다면 적절한 처치와 신속한 병원이송이 이뤄질 수 있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http://www.119.go.kr)'에 접속 후 상단에 119안심콜 서비스 신청 혹은 대리인 등록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떠나보내는 상황을 예방하고 지킬 수 있게 사람들에게 이러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119안심콜 서비스 덕을 봤으면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서귀포 문화도시 다양한 아이디어 '눈길'

“시민들 제안이 정책으로”

○...올해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2022 문화도시 서귀포 문화시민대잔치'가 최근 마무리 된 가운데 '문화원탁'에서 도출된 제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

13일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에 따르면 문화접근성 등 10개 의제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된 '2022 문화도시 서귀포 문화원탁'에서 '서귀포 기후·환경의 날' 지정과 기후 위기 대응 예술가 지원 강화를 비롯 마을 주민들에게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마을별 문화홍보 게시판 설치, 찾아가는 마을 문화발굴단 운영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돼 눈길.

센터는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기상악화 안전사고 대비

○...제주특별자치도가 14일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산지를 중심으로 눈, 그 밖의 지역에 비·눈발이 예상됨에 따라 출·퇴근길 교통안전 및 보행자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

도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운전에 주의하고 차량 운행 전 교통통제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차량을 운행해 달라고 주문.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고 강풍에 대비한 시설물 관리, 한파 건강관리 및 빙판길 낙상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조언. 고대호기자

놀라운 재활용품 보상제, 확대 운영하자

도내 쓰레기 처리난을 풀어줄 해법으로 '재활용품 회수 보상제' 방안이 급부상되고 있다. 쓰레기 처리 대란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각 가정·업소의 감량 노력에 더해 재활용품 보상제로 자원순환 정책 효과가 의외로 크게 나타나면서다. 작년부터 시행중인 재활용자원 회수 보상제는 날로 가중되는 쓰레기 처리난속에 참여 인원·수거량 등서 경이로울 만큼 기대 이상이다.

도가 최근 재활용자원 회수 통합보상제 실적 집계 결과 1월 55.8톤, 10월 79.5톤으로 42%나 증가했다. 투명페트병 건전지종량제 봉투 10에서 2개로 크게 줄인 건 재고돼야 한다. 도정은 '부지거수'인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조정해서라도 재활용품 회수 품목과 인센티브를 크게 늘려 도민들에 의한 '쓰레기 걱정없는 섬'을 앞당겨야 한다.

주변서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재활용되고, 경제적 이득에도 도민들 의식개선에 큰 역할을 하며 '일석 삼사조' 효과다. 참여 인원도 시행 초기인 작년 5400여명에서 올해엔 10월까지 3만7000여명으로 급증, 폭발적 인기다.

도정이 도민들의 재활용품 회수 보상제 참여 열기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 쓰레기 관련 정책이 이만큼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둔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올해 보상기준이 재활용품 1kg당 종량제 봉투 10에서 2개로 크게 줄인 건 재고돼야 한다.

부 고

국중선 어머니 김해김씨 복순(향년 91세)께서 서기 2022년 12월 12일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2년 12월 14일(수요일)
▶발인일시: 2022년 12월 15일(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분향소(4층)
▶장 지: 양지공원

아 들 국중선 며느리 고순애
증명 김미정
중일 이은희
중관 신희경
딸 국현숙
명숙 사 위 전영곤

* 연락처 : 국중선 010-3639-2304
국중명 010-2248-0209
국중일 010-5487-1717
국중관 010-2696-7163

부 고

송정수 아버지 여산송공 향능(前 교장·향년 91세)께서 서기 2022년 12월 13일 10시 10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2년 12월 15일(목요일)
▶발인일시: 2022년 12월 16일(금요일) 오전 6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9빈소
▶장 지: 오라2동 가족선영 납골당

부 인 현은자
아 들 송정수 며느리 정미란
정흠 오명애
손 자 송성민
승우
손 녀 송승현
민주

* 연락처 : 송정수 010-2689-0319
송정흠 010-9661-2469

채권신고공고(청산) 2차

당 회사는 2022년 11월 16일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 하였으므로 당 회사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등 해산에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2023년 1월 23일까지 그 채권액등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일
상그릴라비치 주식회사
220111-0105586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431
청산인 박명용

방수 단열
우 리 탄
우 리 아
방수전문건설업
석 주 개 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감골요목

유 라 조 생	2~3년생
유 라 실 생	5년생
천 헤 향	3~5년생
황 금 향	3~5년생
한 라 동 임	3~6년생
남 진 해	3~4년생
성 전 은 주	3년생
하 레 조 생	3년생
탐 라 봉	3년생
윈터프린스	3년생
감 지 평	3년생
진 지 향	3년생
탱 자 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